

환경보전운동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 「녹색의 전화」 개설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이 개통됐다. 박영숙(朴英淑) 평민당 부총재가 운영하는 「녹색의 전화」는 여성백인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의 13) 2층에 위치.

이 상담실은 박 의원이 국회 보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오염의 원인제거와 함께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 해결을 모색키 위해 개설한 것. 지난 28일 있었던 현판식에는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여성계 쪽에서 일하는 대표들, 평민당 의원들, 김대중 평민당 총재 등도 눈에 띄었다.

보사위 활동중에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환경보전에 관심을 쏟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로 이미 굶을대로 굶은 상태입니다. 이 땅의 공기, 물 뿐만 아니라 우리

의 몸과 피도 오염되고 있지요. 이미 경제와 국방에 치중해 있는 행정부 예산에 희망을 걸긴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환경보전과 공해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박영숙 의원의 결의에 찬 소감이다. 국회를 떠나있게 된 지금이 오히려 상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웃는다.

녹색의 전화가 기존의 환경보전 단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도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동안 환경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이 일어나면 농성이나 탄원서 제출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녹색의 전화는 법률에서의 구제책과 법절차 문제에 대한 상담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현지방문상담 등이 있다. 전화상담은 녹색의 전화(784-2003, 2004)로 직원에게 상담요지 설명후 상담신청을 하면 전화답변이 가능할 때 이루어 진다(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면접상담은 주 3일 즉, 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 녹색의 전화 개통을 알리는 현판식

오후 5시에 한다. 상담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상담위원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상담실 방문이 어려울 때 행해지는 것이 현지방문상담이다.

환경오염 예방·피해구제 등 법률지식 상담에 주력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 법률지식 상담이다. 환경오염 예방·피해구제·중소기업 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

요한 법률상담 등—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법률지식 상담은 공해공장 입주, 공유수면 매립, 안전대책이 소홀한 핵발전소 건설과 무분별한 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생태계 파괴행위 등을 포함한다.

산업폐기물·공장폐수·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 수질 오염의 피해와 비행장·건설공사현장의 소음 피해, 방사능오염 피해, 골프장 농약사용·관광객업소 오수 배출에 인한 상수원과 농산물 피해 등의 구제에 따르는 법률지식 상담도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상담도 함께 한다. 상담료는 무료.

상담위원은 박 의원을 도와 팔당호 골재준설 현장, 설악산 자연과 괴현장 조사와 인천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환경관계법인의 입법발의 등에 참여했던 박 의원 보좌팀 3명과 환경관련학자, 환경보호운동가로 구성된다. 보좌팀 중 2명이 전화상담을 위해 상근하고 법률지식 상담은 보사담당전문위원이 1주일에 3일 근무한다.

녹색의 전화는 정확한 명칭이 있기 전부터 자연의 친구들,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 등과 연대해 활동을 벌여 왔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일하는 각종 단체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한다.

범기독교적·범시민적 운동으로 환경보전을

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현장」 선포를 계기로 자연보호운동이 실행되어 왔으나 피부로 느끼는 공해추방 운동은 최근의 일이다. 한국교계 내에서는 82년 최열 목사(현 공추련 공동의장)의 「한국공해문제연구소」 결성 이래 범기독교적 운

동으로 발전해왔다. 88년에는 유사단체들의 역량이 결집된 공추련이 탄생된 것. 이외에도 한살림 모임, 환경과 공해연구회, 우리농축산물 먹기 운동본부, 자연의 친구들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지난 20, 21일 열렸던 아시아가정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각 가정의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가정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국민과 정부를 환경보전운동에 끌어들이는 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고자와 교수의 주장.

이처럼 학문의 실천에도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범죄, 예를 들면 공중전화를 오래건다는 말에 칼로 가정주부를 살해한 것이나 택시기사의 성폭행,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인신매매 등은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만 2천 명이 넘는 진폐증 환자, 수은중독으로 집단이주를 한 온산과 울산의 주민들, 공장의 폐수와 매립 때문에 피해를 입은 광양만 양식장—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피해

가 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 손실이 없다고 죽어가는 자연을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공해추방이나 공해예방, 환경보전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되찾는 생명운동이다.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및 합성세제사용않기 등의 가정의 세심한 배려가 우리의 환경을 살린다. 각 교회에서도 생명운동을 깨달아 운동단체에만 미워둘 것이 아니라 교회내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를 통해 교인들의 의식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새로 개통된 녹색의 전화는 법률구제책을 간구하고 제도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존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해내길 기대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갖가지 예방책들을 생각해서 실천에 힘쓸 때이다. 각 단체에서는 운동단체나 이러한 상담실 운영도 중요하겠으나 시민들의 노력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범시민적·전국적인 운동이 되어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이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앞에서 뛰는 이들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扶京 기자】



◇ 많은 이들이 환경보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현판식에 참석했다.